

지역인재전형

대입 전형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릴까요? 아마 '지역인재전형'과 '지역균형전형'이 대표적인 겁니다. 두 글자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사이가 먼 친구들은 아닙니다. 모두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거든요.

취재 황혜민 기자 hyemin@naeil.com



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중·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. 2014년 1월 '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지방대학 육성법)'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. 선호도가 높은 의약학 계열의 입학 문을 넓혀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죠. 대학 졸업 후 지역 병원의 의사로 쪽 일하게 된다면 아마 지역 경제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겠죠?

지역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제정

교육부는 먼저 지역의 고등학교,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발 지역 범위를 광역 단위 6개 권역(충청권, 호남권, 대구·경북권, 부산·울산·경남권, 강원권, 제주권)으로 나누고 학부(의과, 한의과, 치과 및 약학대학)는 전체 모집 인원의 30%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, 강원권 및 제주권은 학생 수가 적은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%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했죠.

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경쟁률이 낮을 테니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고, 지역 대학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! 약간의 혼란이 있었 습니다. 의예·한의예·치의예·약학과의 최소 선발 비율을 30%로 '권고'했던 게 원 인이었습니다.

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니 일부 대학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자 교육부 가 다시 등관해 2021년 법률을 개정했습 니다. 이제는 권고가 아닌 '의무'가 된 거 죠. 따라서 지역 대학은 2023년 대입부 터 의약학·한의학·치과대의 최소 선발 비율을 40%(강원·제주 20%), 간호대는 30%(강원·제주 15%)를 지켜야 합니다.

한 가지 더! 지역 인재의 거주 요건도 강화 됐는데요. 현재 고1이 준비하는 2028학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먼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 한 후 진학하려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. 재학 중에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요.

만약 강원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 전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대전에 위치 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같은 권역에 속해도 대학에 따라 지원이 가능 한 지역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대학별 입학 요강을 따로 확인해야 하죠.



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지역'균형'전형

법률 시행이 '의무' 사항이 되면서 많은 대학이 지 역의 우수한 학생을 뽑기 시작했고 대학과 학생 의 만족도가 높아 지금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일반학과까지 넓혀 선발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수시로 선발하며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일반전 형에 비해 낮습니다.

여기서 우리 독자님을 잠시 헛갈리게 할 용어 하 나가 등장합니다. 바로 지역'균형'전형입니다. 가운 데에 있는 단어가 인재가 아닌 '균형'입니다. 다양 한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수도권 대학 입학 기회 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. 대부분 학교장 추 천 조건을 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. 학 생부종합전형에 비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,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. 학교 장 추천은 학생이 원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꼭 의논해야 합니다. @

'이용플' 응용하기

그렇다면 농어촌 전형은 뭘까요?
겉먹지 말고 이 기사를 참고해보세요~



1077호 '인 서울' 정시 확대로 변수 더 늘었다. 농어촌 전형, 합격 구간·이월 인원 주목해야 기사 참조